

고객만족 · 고객우선 실천 위한 투자 골판지업계 연구개발 투자 강조

조병한 / 태림포장공업(주) 부사장

태림포장공업(주)은 1976년 '태림지공사'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이래,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종합 골판지 전문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우수 업체에 골판지 상자를 공급하고 있는 태림포장공업(주)은 현재 경기도 안산 시화공장 부지 면적만 2만3천여 평에 이른다.

법인으로 창립되기 전, 종업원 5명에 부지면적 30평이 고작이었던 태림포장공업(주)이 오늘날 탄탄하고 내실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오로지 한결같이 '태림맨'으로 살아온 조병한 부사장. 지난 4월 12일, 태림포장공업(주)의 창립 26주년 임원인사 단행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그의 '태림 인생'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업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던 조 부사장은 1980년 초, 견학 차 일본 골판지 업계인 '협동지공'의 생산부 부장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제가 그분에게 농담삼아 "난 한국 골판지



업계의 최고가 될테니 당신은 일본의 최고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버럭 화를 내며 자신은 세계의 최고가 될 거라며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자극이 됐습니다. 저 역시 골판지에 인생을 걸어보고 싶은 오기같은 것이 발동했죠."

우연한 계기로 이뤄진 조 부사장의 골판지에 대한 열의는 27년간 한 우물을 파게 했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채찍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조병한 부사장은 현재 태림포장공업(주) 시화공장의 생산 총괄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천안·광주를 비롯한 지방 공장의 생산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태림포장공업(주)을 업계 최고로 만들려는 그의 노력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으로 수차례 위촉, 편면골판지 제조장치 특허증 및 골판지를 이용한 포장물적재판 실용신안등록을 획득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낳게 했다. 또한 조 부사장은 지난 3월 '상공의 날' 행사에서 한국골

“공정 경쟁으로 임금상승 및 복지개선 기대”

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의 추천으로 모범관리자 분야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병한 부사장은 태림과 함께 한 시간 중 태림포장공업(주)이 반월공단에 있었던 1980년대 후반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그 당시는 노사분규가 극심해서 공단 전체 업체들이 혼란스러울 때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노사분규 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을 하더군요. 직원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상장을 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조병한 부사장은 골판지 업종이 소위 3D 업종으로 치부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공급자들이 유저(User)들에게 골판지 포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골판지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음에도 국내 가격이 과당경쟁으로 터무니없이 하향가를 달리는 것에 대해 원가를 고려한 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업계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 및 복지 개선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연구를 위한 투자비까지 조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골판지 상자를 주문할 때 가장

중요한 압축강도와 파열강도를 무시한 채 스스로 종이 및 무게를 선택·지정하는 유저(User)들의 골판지 제조업체에 대한 신뢰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골판지 상자가 제품을 보관 및 보호할 뿐 아니라 디스플레이(display)의 기능까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단순한 ‘상자’로 생각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주방장을 믿고 음식을 주문하는 것처럼, 골판지 제조 전문가를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조병한 부사장은 일을 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현재 가장 우선순위는 단연 ‘고객’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조병한 부사장. 태림포장공업(주)에 종사하는 동안 그는 고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항상 고객이 원하는 바를 찾아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했다.

조 부사장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기 발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골판지 업계의 새로운 연구 투자 및 전문 인력 양성 개발에 기대를 하고 있다.

입사당시 직원 5명이었던 ‘태림지공사’에서 오늘의 태림포장공업(주)의 부사장이 되기까지 27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조병한 부사장의 더 나은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